

<해녀 노 짓는 소리> 辭說의 誤記 및 語釋의 誤謬

이성훈*

<목 차>

- I. 머리말
- II. <해녀 노 짓는 소리> 사실의 오기
- III. <해녀 노 짓는 소리> 어석의 오류
- IV. 맺음말

I. 머리말

<해녀 노 짓는 소리>¹⁾의 연구는 음악적, 문학적, 민속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문학적, 민속학적 측면에서 <해녀 노 짓는 소리>를 바로 연구하려면, 우선 사실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연구를 기대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찌 문학적 혹은, 민속학적 연구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해녀 노 짓는 소리>를 해석하고 연구함에 있어 부닥치는 어려움은 사실을 구성하는 어휘들의 의미가 난해하다는 점, 자료집마다 사실의 표기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녀 노 짓는 소리>의 사실이 도대체 무엇을 노래한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

* 숭실대 박사과정, 숭실대 강사.

1) <해녀노래>, <해녀요>, <해녀가>, <해녀 노 짓는 노래>, <감녀가> 등의 명칭이 있으나, 필자는 노래의 기능이 드러나도록 '<해녀 노 짓는 소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본고는 기왕의 수집된 <해녀 노 짓는 소리> 자료들 중에서 사설의 오기나 어석의 오류로 인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몇 개의 語辭를 다시 들여다봄으로써 <해녀 노 짓는 소리> 사설의 수집과 표기에 대한 이제까지의 접근 방법에 반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그간 <해녀 노 짓는 소리>를 포함해서 제주도 민요자료는 상당량 수집·주석되어 왔으나, 상당수의 수집자나 주석자들이 사설의 오기와 어석의 오류를 범해왔으며, 그런 오기나 오류들은 제대로 수정된 적이 없다. 그 결과 <해녀 노 짓는 소리>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민요자료집에 수록된 <해녀 노 짓는 소리> 사설의 오기 및 주석의 오류에 대한 선행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민요 모든 요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녀 노 짓는 소리> 사설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해녀 노 짓는 소리>의 연구자가 극소수이고, 사설 내용 또한 해녀와 어업에 관한 특수 어휘가 많은 것이 한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해녀 노 짓는 소리>의 본질을 파악하고 사설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서도 사설의 오기 및 주석의 오류에 대한 고찰은 필요한 작업이다. 이는 기록문학에서 말하는 텍스트의 확정과도 같은 것이다. 사설의 오기 및 어석의 오류가 바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해녀 노 짓는 소리>를 연구한다는 것은 자칫 <해녀 노 짓는 소리>의 본질이나 실상과는 동떨어진 주변적인 피상적 고찰이나 이해에 머무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기왕에 수집된 <해녀 노 짓는 소리>의 자료들 중에서, 1929년에 金料白이 「女人國巡禮, 濟州島海女」²⁾에 소개한 자료가 최초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여러 선학들에 의해 상당량의 <해녀 노 짓는 소리>가 수집 정리되었다. 제주도 출신 학자로는 秦聖麒,³⁾ 金榮敦⁴⁾이, 본토 출신 학자로는 金思燁·

2) 金料白, 「女人國巡禮, 濟州島海女」, 『三千里』創刊號(三千里社, 1929), 22~23쪽.

3) 秦聖麒, 『濟州島民謠』 제1집(희망프린트사, 1958); 秦聖麒, 『濟州島民謠』 제2집(중앙미술사프린트부, 1958); 秦聖麒, 『濟州島民謠』 제3집(성문프린트사, 1958).

崔常壽·方鐘鉉,⁵⁾ 林和,⁶⁾ 金永三,⁷⁾ 任東權,⁸⁾ 임석재⁹⁾가, 일본인 학자로는 高橋亨¹⁰⁾이 수집한 자료들이 그것이다.

초창기에 수집된 <해녀 노 젓는 소리> 자료, 제주도 출신이 아닌 선학들이 수집한 자료, 학부생들이 현지 조사한 자료 중에는 사실의 오기나 어석의 오류가 간혹 보인다. 이는 제주방언의 난해함과 더불어 해녀 직업 및 해양 관련 어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민요 제보자가 구연한 사실을 정확히 듣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기도 하다. 심지어 金榮敦도 『濟州島民謠研究上』(一潮閣, 1965)를 펴낼 때, 교정 도중에도 그 어석을 몇 차례 고치기까지 했다¹¹⁾고 했다.

본토 사람에게 있어서 제주방언은 그 발음이 생소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 또한 난해하다. 제주 방언이 일상 대화가 아닌 노래로 불려질 때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 일쑤이고, 노랫말 중에 생소한 어휘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본고는 기존 민요자료집에 수록된 <해녀 노 젓는 소리> 사실의 어휘가 오기된 사례와 어석이 잘못된 사례를 들고, 바로잡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4)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一潮閣, 1965); 金榮墩, 『濟州의 民謠』(新亞文化社民俗苑, 1993).
 5) 金思燁·崔常壽·方鐘鉉, 『朝鮮民謠集成』(正音社, 1948).
 6) 林 和, 『朝鮮民謠選』(學藝社, 1939).
 7) 金永三, 『濟州民謠集』(中央文化社, 1958).
 8) 任東權, 『韓國民謠集』(東國文化社, 1961) 및 『韓國民謠集 I』(集文堂, 1974); 任東權, 『韓國民謠集 II』(集文堂, 1974); 任東權, 『韓國民謠集 IV』(集文堂, 1979); 任東權, 『韓國民謠集 V』(集文堂, 1980).
 9) 임석재, 『임석재 채록 한국구연민요-자료편(해설·악보·가사)』(집문당, 199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임석재 채록 한국 구연민요 자료집』(서울: 민속원, 2004).
 10) 高橋亨, 『濟州島の民謠』(天理大學 東洋學研究所, 1968).
 11) 金榮墩, 「민요 요사 속에 담긴 유별난 제주 방언」, 『東岳語文論集』 제29집(동악어문학회, 1994), 54쪽.

II. <해녀 노 짓는 소리> 사설의 오기

<해녀 노 짓는 소리> 사설의 오기는 제보자가 부른 사설의 어휘를 수집자가 정확히 듣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경우와, 민요자료집을 編著할 때 原著와는 다르게 사설의 어휘를 잘못 수록한 경우가 있다. 수집자가 사설을 오기하게 된 원인은 제보자가 가장한 사설의 어휘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정확히 청취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보이는데, 필자의 자료수집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왜냐하면 <해녀 노 짓는 소리>의 사설은 그 내용이 유행화되어 있어서 고정적인 경우가 많고, 개인적인 체험이나 정서를 노래한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에서 채록할 때 한 제보자가 사설의 어휘나 구절을 잘못 불렀을 경우에는 여타의 제보자들이 잘못 불렀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물론 제보자의 잘못된 제보에 따른 사설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민요의 특징 중에 사설의 '유동성'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뿐만 아니라, 민요 사설은 듣고 배우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구연상황이나 정서에 맞게 제보자 자의로 사설을 바꾸어 노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녀 노 짓는 소리>의 사설이 구전되는 동안 몇몇 어휘가 訛傳될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먼저 수집자가 잘못 청취하여 사설의 어휘가 오기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살펴본 다음에, 구전되는 동안 사설의 어휘가 訛傳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수집자가 잘못 청취하여 사설의 어휘가 오기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

총각 짜라 섬에나 들게

량식 짜라 섬에나 가게

정심 짜라 고지나? 가게

날죽건 솟바테 무더
궁녀 신녀 물주람 말가¹²⁾

[2]

요년들이 저서도라
요녀 짝이 불내진들
서늘꽃이 없을만가¹³⁾

[1]의 자료를 『三千里』에 소개한 金料白은 제보자에 대한 인적 사항이나 수집 지역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本土의 어느 해안에서 제주해녀들로부터 채록한 것으로만 보인다. 『女人國巡禮, 濟州島海女』의 기사 내용 중 일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천길만길되는 바닷물을 쓸코드러가 그밧테살린 바위에서밥찌리를 차차내는이가 海女이다 濟州島方面은 勿論이러니와 『생복』이나 『고동』이잡히는 海岸方面을다 녀본사람이면 누구나다—이러한 潛水의職業을가진 勞動婦人을보았을것이다¹⁴⁾ ... 일흔봄으로부터 느진가을까지에 風浪이나고요한날이면언제든지 바다한가운데서異常한노래를부르며 잠박꼭질하는海女를볼수잇스니散髮한얼굴만이 白鳩와벤틀이되어 蒼浪에쓰다가는휘—하는소리와 한가지로 물속에 사라지고 죽지나안앗는가의심하는동안에어느듯 생복을손에쥐고 젓가슴까지물막그로내어놓는그들의作業光景은보는사람으로人魚나아닌기疑心케한다 이러한勞働을 四五十分繼續한後에는附近섬이나바위애나와 불을피우고 물속에얼엇든몸을말리면서 그들의獨特한音調로노래를부른다¹⁵⁾

12) 金料白, 앞의 글, 23쪽.
13) 林 和, 앞의 책, 240쪽.
14) 金料白, 앞의 글, 22쪽.
15) 같은 글, 23쪽.

金料白은 또한 제주도 방언의 난해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더구나 그들의 出生地가 全部濟州島인 까닭에 言語風俗이 陸地와 懸殊한 點이 업지 안으니 高低淸濁이 外國語와 가타들리는 그들의 말씨라든지 健壯한 半裸體로 붓거림 도 업시 男子사이로 濶步하는 그들의 習俗이 對하는 사람의 耳目을 놀라게 하지 안을 수 업다¹⁶⁾

이처럼 제주도 방언이 本土 출신 학자들에게는 난해한 것이었기에 제주 방언을 기록함에 있어 오기할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고 본다. 그것이 수집한 노래의 사설일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제 사설의 어휘가 오기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의 “총각 싸라 섬에나 들게”는 ‘총각 차라 물에나 들게’의 誤記로 보인다. “총각”은 “해녀들이 예전에 무자맥질하면서 작업하기에 편리하도록 머리 털을 비녀없이 머리 위에 쪽지고 이멍거리라는 끈으로 이마에서 뒷머리로 넘겨 묶는 머리 모습의 하나”이다.¹⁷⁾ 따라서 김두백은 제보자가 “총각 차라”라고 가창한 것을 “총각 싸라”라고 “총각”이란 어휘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량식 싸라”나 “정심 싸라”와 같은 음으로 파악하여 “싸라”로 오기했다고 본다. 또한 “꽃바테 무더”의 경우도 “섬에나”와 같이 형태소를 밝혀서 “꽃밭에 묻어”라고 끊어적기를 하지 않고 소리나는 이어적기를 한 점도 주목할 만한 하다.

또한 [1]의 “고지나”는 “수풀에나”의 의미이다. 그런데, 수집자인 金料白은 “고지나”에 “?”를 덧붙여서 수록했다. 이것은 “고지”라는 제주 방언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표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 “고지”는 ‘수풀’을 뜻하는 제주방언이다. ‘고지’가 ‘수풀[藪]’을 뜻하는 제주방언이라는 사실은 李元鎮의 『耽羅志』(1653)에도 보이는데,¹⁸⁾ 이기문은 이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확실

16) 같은 글, 22쪽.

17) 濟州方言研究會, 『濟州語辭典』(濟州道, 1995), 543쪽.

한 말을 할 수 없다¹⁹⁾고 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도 본토인에게는 제주방언이 난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2]의 “서늘꽃이”는 “선홀고지”의 誤記이다. [2]의 수집자는 제보자가 “선홀고지”라고 가창한 것을 “서늘꽃이”로 오기한 것이라고 본다. ‘선홀’은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선홀리이다. 제주민요에 선홀리의 숲을 ‘서늘고지’라고 관용적 표현으로 많이 쓰인다. 이 ‘선홀’은 올림소리 사이에서 ‘ㅎ’이 약화되어 ‘서늘’로 발음된다. 또한 ‘고지’ 또는 ‘꽃이’는 ‘수풀’의 제주방언인데, 수집자는 ‘꽃이’를 중세어 ‘꽃[花]이’로 잘못 인식하여 “꽃이”라고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집자는 “서늘”이 지명이라는 사실과 “고지”가 “숲”이라는 점을 몰랐기 때문에 ‘서늘고지’ 또는 ‘선홀고지’라고 표기해야 할 것을 “서늘꽃이”로 오기했다고 본다.

[3]

총각찾아 물에들제
양석싸라 섬에가게
명주바당에 쓸바름불라
모란탄전 배놓아가게²⁰⁾

[4]

總角찾아 물에들제
양석싸라 섬에가게
명주바당에 쓸바름불나

18) 사투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앞이 높고 뒤가 낮다…주기(州記)에는 이상한 말이 많으니, ‘서울’을 ‘서나’ ‘숲’을 ‘고지’ ‘산’을 ‘오름’이라 한다.(村民俚語難澁先高後低…州記語多殊音以京爲西那 以藪爲高之 以岳爲兀音…李元鎮, 『耽羅志』)

19) 이기문, 『濟州方言과 國語史 研究』, 『耽羅文化』 第13號(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3), 151쪽.

20) 任東權, 『韓國民謠集II』(서울: 集文堂, 1974), 216쪽.

모란탄전 배노아가게²¹⁾

[3]은 任東權의 『韓國民謠集Ⅱ』(集文堂, 1974.)에 수록된 789번 자료의 일부분이다. 이 789번 자료는 『韓國民謠集Ⅱ』 216~217쪽까지 “<海女謠 3>”으로 수록된 자료인데, 歌尾에 출전을 “(濟州地方)”이라고만 밝혀 자칫 임동권이 채집한 자료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 이 789번 자료는 林和의 『朝鮮民謠選』(學藝社, 1939) 239~242쪽까지 수록된 자료를 인용한 것인데, 출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任東權이 『韓國民謠集Ⅱ』를 간행하면서 출전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韓國民謠集Ⅱ』 범례에 “文獻을 引用한 資料는 歌尾에 單行本에 限해서 出典을 밝혔으며, 出典의 略符號는 다음과 같다. …民選 林和 編 朝鮮民謠選…”라고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韓國民謠集Ⅱ』 72~73쪽까지 수록된 “<김매는 노래7>”의 歌尾에 “(大邱地方) 民選89”라고 출전을 밝혔기 때문이다.

任東權 編著인 [3]의 “총각찾아 물에들제”, “쓸바름불라”, “배놓아가게”는 林和原著인 [4]에는 “總角찾아 물에들제”, “쓸바름불나”, “배노아가게”로 수록되어 있다. 원저의 “물에들제”를 “물에들제”로 기록된 것은 책을 간행하면서 교열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본다. 하지만 原著의 “쓸바름불나”, “배노아가게”를 “쓸바름불라”, “배놓아가게”로 기록한 것은 임동권이 자의로 原著와는 다르게 사설의 어휘를 어법상 맞게 고친 것으로 보인다.

[4]의 “總角찾아 물에들제”는 ‘총각차라 물에들게’의 오기로 보인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총각”은 해녀들이 무자맥질하면서 작업하기에 편리하도록 머리를 묶는 모습의 하나로, 제보자가 머리를 쪽지다의 의미인 “차라[佩]”로 가창한 것을 “찾아[索]”로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물에들제”는 “물에들게”를 편집이나 교정을 잘못하여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제’는 문맥

21) 林和, 앞의 책, 239쪽.

적 의미로 볼 때 ‘적에’의 준말로 보는 것보다 동사 어간에 붙는 하계체의 명령형 종결어미 ‘-게’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집자는 제보자가 ‘총각차라 물에들게’라고 부른 것을, ‘總角찾아 물에들제’로 오기했다고 본다.

[5]

용왕님아 용왕님아

우리배에 가는 델랑 제수대통 시켜 주시오

이어사야 이어사

참매새끼 놓는 듯이 놓는 배야

어서가자 어서가

용왕님아 용왕님아

우리배 가는데는 물건도 많고 자리도 좋은데로

달을 돛게 해주소서

이어사나 이어이어 이어사나²²⁾

[5]는 『강원 어촌지역 전설 민속지』(강원도, 1995)에 처음 수록 되었고, 李東喆, 『江原 民謠의 世界』(국학자료원, 2001)에 재수록 되었다. 이 자료는 1995년 4월 30일 이동철 교수의 지도 아래 관동대학교 <민요조사반>이 삼척시 원덕읍 갈림1리에서 제보자 양애옥(여, 41세)으로부터 채록되었다. 정리는 국어교육과 2년 장중석이 맡았는데, 사실을 제주방언으로 표기하지 않고 표준어로 재정리했다고 본다. 왜냐하면 양애옥은 제주도가 고향인 해녀로서, 본토에 정착한 제주출신 해녀들은 <해녀 노 짓는 소리>를 부를 때는 모두 제주방언으로 부르기 때문이다. [5]의 사실 중에 “우리배에 가는 델랑 제수대통”과 “달을 돛게 해주소서”를, 『江原 民謠의 世界』에서는 “우리배 가는

22) 강원도 동해출장소, 『강원 어촌지역 전설 민속지』(강원도, 1995), 228~229쪽; 李東喆, 『江原 民謠의 世界』(국학자료원, 2001), 217쪽.

델랑 재수대통”와 “땀을 놓게 해주소서”로 바로잡았다. 하지만 “참매새끼 놓는 듯이 놓는 배야”의 “놓는”은 ‘날다[飛]’는 의미인데, 제보자가 “느는”으로 노래한 것을 “놓는”으로 잘못 청취하여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인들은 ‘날다’를 ‘놓다’로 말한다. 예컨대 관용표현으로 “기도 못하는 게 놀쟁 혼다.”가 있는데, 이는 ‘기지도 못하는 것이 날려고 한다’는 말이다.

[5]의 사실 표기는 제보자가 제주방언으로 노래한 것을 표준어로 번역하여 옮긴 듯하다. “시켜 주시오”와 “해주소서”를 제주방언에서는 “시켜줍서”와 “해줍서”로 말한다. ‘-서’는 받침 없는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합쇼’할 자리에 그 행동하기를 바라는 대자존대(對者尊待)의 명령법 어미이다.²³⁾ 예컨대 ‘삼춘 어떻게 내 살게 해 주십시오’를 제주어로는 “삼춘 어떻 날 살게끔 어떻게 줘서.”라고 말한다. <해녀 노 짓는 소리>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본토의 해안지방에서도 전승되고 있는데,²⁴⁾ <해녀 노 짓는 소리>의 가락은 한 가지인데 지역이나 부르는 전승자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²⁵⁾ 또한 사실은 본토에 정착한 해녀일지라도 반드시 제주방언으로 <해녀 노 짓는 소리>를 부른다. 그것은 동일 방언 사용자끼리는 상호의사 소통력과 동질의식을 갖고 있기²⁶⁾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5]는 <해녀 노 짓는 소리>의 사실을 정리한 자가 제주방언을 표준어로 번역하여 수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3) 濟州方言研究會, 앞의 책, 245쪽.

24) 현재까지 본토에서 <해녀 노 짓는 소리>를 채록하여 학계에 보고된 지역은 경상남도 통영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속초시·삼척시 등이다. 수록된 자료의 출처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 동해출장소 『강원 어촌지역 전설 민속지』(강원도, 1995); 강한호, 「해녀 민속 문화의 이동에 관한 연구—경남 사량도의 구비문학을 중심으로」(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부산남구민속회편, 『남구의 민속과 문화』(부산남구민속회, 2001);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울산울주지방 민요자료집』(울산대학교출판부, 1990); 李東喆, 『江原 民謠의 世界』(국학자료원, 2001); 이성훈, 「경남 통영시 해녀 <노 짓는 노래> 조사」, 『한국민요학』 제11집(한국민요학회, 2002); 이성훈, 「강원도 속초시 해녀 <노 짓는 노래>와 생애력 조사」, 『송실어문』 제19집(송실어문학회, 2003).

25)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女性勞動謠를 中心으로」(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3), 72쪽.

26) 문순덕, 「제주방언의 보존과 활용 방안」, 『영주어문』 제6집(영주어문학회, 2003), 116~117쪽.

이처럼 제주방언 사설을 현대어 표기로 바꿔 일반의 필요에 쫓았던 자료 집으로는 1960년에 간행된 秦聖麒의 『오돌또기』²⁷⁾를 들 수 있다. 이 『오돌또기』는 1977년에 『南國의 民謠』²⁸⁾로 서명을 바꿔 재간행 되었는데, 『오돌또기』에서 밝히지 않았던 제보자와 수집지역 및 일시를 명시했고, 제주도 민요의 개관을 덧붙였다. 또한 『오돌또기』에서 민요 사설의 표기를 ‘·’는 그에 가까운 음으로, 어휘는 현대 표준어 철자 표기로 바꿨던 것을 제주방언으로 다시 바꿔서 수록했다. 이는 민요 사설은 제보자가 부른 그대로 표기하여 자료집의 가치를 살리려는 의도이다.

[6]

산짓물에 놀아난 송어
 심어 내연 등 줄란 보란
 아니 먹을 사슴이러라
 먹어 노난 근심이 되고
 근심 재완 아니든 좁은
 들언 노난 날 썰 줄 몰라라²⁹⁾

[6]의 “아니 먹을 사슴이러라”의 “사슴이”는 ‘사스미’를 오기한 것이다. “산짓물에 놀아난 송어 / 심어 내연 등 줄란 보란 / 아니 먹을 사슴이러라”를 표준어로 옮기면 ‘산지[제주시 건입동에 소재한 제주향]물에 놀던 송어 잡아 내어 등을 잘라 보니 아니 먹을 생선회더라’이다. 따라서 제보자가 일본어로 ‘사시미(刺身/さしみ)’인 생선회의 의미로 ‘사스미’라고 노래한 것을 ‘사슴이’로 오기한 것이다. ‘사스미’를 “사슴이”로 오기할 경우 자칫 생선회

27) 秦聖麒, 『오돌또기』(友生出版社, 단기4293). 『오돌또기』는 秦聖麒의 『濟州島民謠』 제1·2·3집(1958)에 수록된 자료들 중에서 400편을 가려 뽑아 수록한 자료집이다.

28) 秦聖麒, 『南國의 民謠』(正晉社, 1977).

29) 秦聖麒, 『濟州島民謠』 제2집(중앙미술사프린트부, 1958), 58쪽.

가 아닌 사슴[鹿]으로 곡해할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 민요 사설에 간혹 일본어가 쓰인 것은 해방전후에 걸쳐 제주도민 총인구의 1/3은 일본에 갔던 경력이 있으며 성년 계층은 대부분 일본어를 해득하고 있기³⁰⁾ 때문이다.

[7]

요년들아	저사나굴라
요해짜기	부러나진들
고지냥이	낭없을소냐
이허도사나	시-
칠아칠아	시- ³¹⁾

[7]은 『朝鮮民謠集成』(正音社, 1948)에 수록된 사실인데, 方鐘鉉이 쓴 序에 “濟州島 民謠만은 그 全部 筆者가 採集한 것이다. 濟州島 民謠에 關해서는 十數年前 朝天에서 그 當時 八十을 넘어선 一 老嫗로부터 採集한 것인데, …”³²⁾라고 채집경위를 밝혔다. 사실 중에 “저사나굴라”와 “요해짜기”는 “젓어나굴라(저어 가자)”와 “요네착이(요 櫓 짝이)”의 오기로 보인다. 또한 “칠아칠아”는 후렴구로서 “쳐라쳐라”의 오기로 보인다. 해녀들이 거센 바다를 노 저어갈 때 “저어라저어라”의 축약인 “쳐라쳐라”에 강세를 주어 “쳐라쳐라”로 부르는 것이 그것이다.

[8]

벧난 날애 어데 비오리
 제주영산(濟州瀛山) 드리운빗발
 실은情女 눈물이러라

30) 慎勝行, 『濟州方言에서의 日本語系女 外來語 研究』, 『국어교육』 48(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1984), 154쪽.

31) 金思燁·崔常壽·方鐘鉉, 앞의 책, 323쪽.

32) 金思燁·崔常壽·方鐘鉉, 앞의 책, 2쪽.

눈물 소(沼) 에배란세워
한숨으로 즈어가세³³⁾

제주방언의 ‘에’는 고정된 공간적 처소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조사이고,³⁴⁾ ‘란’은 받침 없는 체언이나 ‘르’받침의 체언에 붙어서, ‘느’의 뜻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격조사이다.³⁵⁾ [8]의 “눈물 소(沼) 에배란세워”는 띄어쓰기를 잘못된 예이다. ‘눈물 소(沼)에 배란 세워’로 기록해야 옳다. 즉 ‘눈물 소(沼)에 배는 세워’의 의미이다. 이처럼 제주민요 사설에 드러나는 어휘가 일상에서 쓰인다 하더라도 조사자가 상당 수준 제주어의 활용에 대한 식견이 없다면 얼른 그 뜻이 잡히지 않을 수도 있기³⁶⁾ 때문이다.

[9]

가시울음	강당장집에
시클방에	새문어서라
정경구진	이내몸가난
요속꼴로	내마침서라 ³⁷⁾

[9]에서 사설의 어휘를 오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울음”, “시클방에”, “새문어서라”이다. 제주도에는 아주 자그마한 기생화산으로 360여 개가 산재해 있는데,³⁸⁾ 이를 ‘오름’이라고 한다. 李元鎭, 『耽羅志』에는 ‘오름’을 ‘兀岬’으로 기록돼 있다.³⁹⁾ 제주도에 ‘가시오름’이란 지명은 두 개가 있다.

33) 미상, 「海女の 노래-濟州島民謠」, 『別乾坤』, 第7卷第7號(제42호)(開闢社, 1931), 3쪽.
 34) 濟州方言研究會, 앞의 책, 412쪽.
 35) 같은 책, 188쪽.
 36) 金榮煥, 「민요 요사 속에 담긴 유별난 제주 방언」, 『東岳語文論集』, 제29집(동악어문학회, 1994), 56쪽.
 37) 任東權, 『韓國民謠集IV』(集文堂, 1979), 191쪽.
 38) 梁弘植·吳太用, 『濟州鄉土記』(프린트판, 단기4291), 13쪽에는 기생화산이 300여개가 있다고 했다.

남제주군 대정읍 동일리 북쪽에 있는 산과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의 옛 이름이 그것이다.⁴⁰⁾ [9]의 사설에 “가시오름”은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의 옛 이름이다. 왜냐하면 “가시울음”은 뒤에 이어진 사설 “강당장집에”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南濟州郡 表善面 加時里의 康堂長傳說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⁴¹⁾ 따라서 수집자는 ‘가시오름’을 “가시울음”으로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특유의 ‘남방에(나무방아)’를 짚음에 있어서 ‘꼴’이란 방아 짚는 사람들의 절굿공이의 수효의 단위이다. 두 사람이 짚으면 ‘두꼴방에’, 세 사람이 짚으면 ‘식꼴방에’ 또는 ‘세꼴방에, 네 사람이 짚으면 ‘늑꼴방에’라 한다. “시꼴방에”는 제보자가 ‘식꼴방에’라고 부른 것을 오기한 것이다. 또한 두 사람 이상이 절굿공이를 들고 ‘남방에’를 짚을 경우, 그 사이가 어긋나서 어울리지 못하고 있을 때, ‘새글럼서라’라고 한다. 따라서 수집자는 ‘새글럼서라’를 “새문어서라”로 오기했다고 본다.

[10]

요 네 상착 부러진들
한라산이 꿈은 낭기
엇일 말가 이어 사나
요 네 밴드래코 떨어진들
부산 항구 아산옥이
엇일 말가 이어 사나
요 내 훌목 부러진들

39) 村民俚語難澁先高後低…州記語多殊音 … 以岳爲兀音…

40) 濟州方言研究會, 앞의 책, 16쪽.

41) 康堂長傳說은 다음과 같다. “康堂長은 소문난 부자였지만, 매물찬 過慾이 화를 불러일으킨다. 탁발승을 홀대했다가 강당장을 폐당시키려는 탁발승의 꾀에 발목이 잡혀 先墓를 옮긴다. 그랬더니 갖은 怪變이 일어나면서 강당장 집은 금작스레 망하고 만다.”(金榮燾, 앞의 글, 60쪽 참조).

요 네 상착 부러지라⁴²⁾

[11]

요네야상착	부러나진덜
부산항구	가시낭이
엇일말가	이여도사나
요밴드레	부러나진덜
부산항구	아사노가
엇일말가	이여도사나 ⁴³⁾

밴드레는 낚싯거루의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배 멩에와 노손을 묶어 놓은 밧줄을 말한다. [10]의 “밴드래”는 ‘밴드레’의 오기인데, [11]의 “밴드레”와 같이 써야 옳다. 제주어에서는 ‘ㄱ’와 ‘ㄱ’의 구분이 모호한데, 대체로 ‘ㄱ’가 우세하기⁴⁴⁾ 때문이다. 석주명은 “제주도방언의 특징 중의 하나로 ‘ㄱ’와 ‘ㄱ’의 구별이 殆無하다”⁴⁵⁾고 했다.

다음으로 구전되는 동안 사실의 어휘가 訛傳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10]의 “아산옥”은 ‘아사노’의 訛傳이다. 아사노는 삼으로 꼬아 만든 밧줄을 말하는데, 일본어 ‘あざ[麻]’와 한자어 ‘노(槽)’의 합성어이다. [10]의 제보자는 <해녀 노 짓는 소리>를 배울 때, 선배 해녀들이 [11]과 같이 “아사노”로 부르는 어휘를 “아산옥”으로 잘못 청취했기 때문에 “아산옥”으로 가창했다고 본다. 따라서 “아사노”가 “아산옥”으로 와전된 것이라고 본다.

42) 秦聖麒, 『濟州島民謠』 제1집(희망프린트사, 1958), 138~139쪽.

43) 金榮燧, 『濟州의 民謠』(新亞文化社(民俗苑), 1993), 262쪽.

44) 金榮燧, 앞의 글, 61쪽.

45) 石宙明, 『濟州島方言集』(서울신문社出版部, 1947), 179쪽.

[12]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그만흐민	요목저목
울탄목이	근당홀다
저라저라	저라저라 ⁴⁶⁾

[13]

이목저목	지드리든
울탄목이	당도홀다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⁴⁷⁾

[14]

요 목 조 목	울뜰목이여
잘 올라간다	공갈대갈
잘 올라간다	저라저라
어기야저라	이여사나 ⁴⁸⁾

[15]

히야사	히야사
우리베는	잘도간다
울던목가	살던목가
허리알로	잘도간다
덕더리도	젓업시민

46) 金榮墩, 앞의 책, 307쪽.

47) 같은 책, 263~264쪽.

48) 이성훈, 「경남 통영시 해녀 <노 짓는 노래> 조사」, 『한국민요학』 제11집(한국민요학회, 2002), 249쪽.

넘어난다

이여도사나⁴⁹⁾

[12]의 “울탄목”과 [13]의 “울단목”은 ‘울돌목’의 訛傳이다. 울돌목[鳴梁海峽]은 전라남도 우수영반도와 진도 사이의 해협으로 조류가 빠른 곳으로 유명하다. [12]과 [13]의 제보자는 <해녀 노 젓는 소리>를 배울 때, 선배 해녀들이 [14]과 같이 “울돌목”으로 부르는 어휘를 “울탄목”과 “울단목”으로 잘못 청취했기 때문에 “울탄목”과 “울단목”으로 와전된 것으로 본다. 이는 <해녀 노 젓는 소리> 자료 중에 ‘울탄목’, ‘울단목’ 어휘보다 ‘울돌목’ 어휘가 압도적이라는 데서도 입증된다.

한편 [15]의 “울던목”은 어휘가 와전되었다기보다는 제보자가 의도적으로 ‘울돌목’을 ‘울던목’로 부른 것이라고 본다. ‘울다’[泣]와 ‘살다’[生]의 의미로 짝을 이루어 “울던목”은 뒤에 이어지는 “살던목”에 대응되도록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종의 언어유희 수법으로 수집자의 오기가 아닌 제보자가 운을 맞추기 위한 의도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의 오기는 수집자가 노래를 잘못 청취하거나 구전되는 동안 사실의 어휘가 訛傳 경우와 민요자료집을 編著할 때 原著와는 다르게 수록한 경우가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민요 수집은 일회성 현지조사로 그칠 게 아니라 청취가 제대로 안 되거나 사실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2차 내지는 3차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Ⅲ. <해녀 노 젓는 소리> 어석의 오류

申斗憲은 “제주도민요는 방언 그대로의 표현이기 때문에 제주도민 외에

49) 任東權, 앞의 책, 196쪽.

는 이 민요를 註釋 없이는 해득하기 곤란하다. 철저한 주석을 위하여 古語學, 方言學, 漢文學 등 어학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秦聖麒의 『제주도민요1·2·3집』(1958)과 金永三의 『제주민요집』(1958)을 살살이 살펴본 바 意味未詳의 구절도 있거니와 編者의 註釋 중에 誤釋 내지 牽強附會한 점이 다소 있음을 발견하였다.”라고 했다.⁵⁰⁾

<해녀 노 짓는 소리> 사실에 드러나는 어휘가 일상생활에 쓰인다 하더라도 조사자가 상당 수준 제주어의 활용에 대한 식견이 없다면 그 뜻이 얼른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 제주 출신의 조사자라도 정확한 뜻이 알쏭달쏭이다.⁵¹⁾ 본토 출신 조사자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해녀 노 짓는 소리> 사실의 어석을 잘못 붙이기 일쑤이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어석의 오류를 몇몇 어휘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6]

總角찾아 물에들제
양석싸라 섬에가게
명주바당에 쓸바름불나
모란탄전 배노아가게⁵²⁾

[16]의 “總角찾아 물에들제”의 “總角”은 어석의 오류이다.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각’은 물질하기에 편리하도록 예전에 해녀들이 머리를 버려 없이 쪽지고 <이명거리>라는 띠로 이마에 두른 머리 모습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런데 수집자는 결혼하지 않은 성년 남자를 뜻하는 한자어인 이른바 ‘總角’으로 표기함으로써 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처럼 머리 모습을 의미하는 ‘총각’을 결혼하지 않은 남자의 의미인 ‘總角’으로, 수집자 자의로

50) 申斗憲, 『濟州島民謠의 研究』(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61), 154~155쪽.

51) 金榮徵, 앞의 글, 56쪽.

52) 林和, 앞의 책, 239쪽.

해석하여 기록한 것으로는 高橋亨의 자료⁵³⁾도 있다.

[17]

산아산아	壽永島山아	山よ山よ	壽永島の山よ
이여산아	이여산아	この山よ	この山よ
산도설고	물도선되	山も悲しく	水も悲し
어디라고	내여괴왔나	何処と思つて	此処に来た
돈일러라	돈일러라	金の為だよ	金の為だよ
말모른개	돈일너라	ものも言はない	金の為だよ
돈의全体	곳아니면	金といふものゝ	為でなけりや
내가여괴	어이오리	妾しは此処へ	どうして来やう ⁵⁴⁾

[17]의 “이여산아”는 ‘이여사나’의 語釋 誤譯이다. <해녀 노 젓는 소리>의 후렴은 ‘이여도사나’ 혹은 ‘이여사나’ 등이 있다. [17]의 “이여산아”는 후렴구 ‘이여사나’인데, 첫행 “산아산아 壽永島山아”의 “산아”에서 유추하여 후렴구 ‘이여사나’를 “이여산아”로 기록하여 어석의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도설고 / 물도선되”는 “山も悲しく / 水も悲し”로 번역했는데, “설고”와 “선되”는 낮이지 못하여 서먹하거나 어색하다는 이른바 ‘설다’는 의미로 쓰인 말인데, 슬프다는 “悲”의 의미로 誤譯한 것이다. 또한 제주어에는 古語가 흔히 깔렸음은 우리의 상식이다. ‘전체’·‘전체गत’이란 어휘도 그 한 예인데, 훈민정음에 드러나는 ‘전츠’라는 어휘가 그것이다.⁵⁵⁾ 제주어에서 ‘전체गत’, ‘전치’는 ‘까닭’의 의미로 쓰이는데,⁵⁶⁾ “돈의全体 곳아니면”의 “全体

53) 高橋亨, 앞의 책, 53쪽.

54) 같은 책, 156쪽.

55) 김영돈, 『한국의 해녀』(민속원, 1999), 320~321쪽.

56) 濟州方言研究會, 앞의 책, 491쪽.

곳”은 제주어 ‘전체곳’의 어석 오류이다.

[18]

요년들아	저서나주라	此女達や	漕いでくれ
한물거리	저서나주라	一潮の間	漕いでくれ
요네착이	붙어진들	お前の櫓が	折れよとも
서늘곳에	남업시라	ソヌルの森に	木がなかる ⁵⁷⁾

[19]

우리배는	身수가조완	妾等の船は	運がよくて
한물거래에	돈千兩이며	一潮の間に	千兩とれた
요네상착	부리지라	お前の櫓の柄が	折れやうとも
곳질남도	업슬손가	代りの木が	ないでやない
하이카라가	조타한들	ハイカラさんが	好いとはいへど
銀錢紙錢이	날살나지	銀貨と札が	妾しを活かす ⁵⁸⁾

[18]의 “서늘곳”은 ‘서늘곳’의 오기이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선홀’은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선홀리이다. 제주어의 ‘숲’이라는 의미인 ‘곳’은 ‘고지’라고도 한다. 수집자는 ‘서늘곳’을 “서늘곳”으로 오기했지만 일본어로는 옳게 번역했다. “ソヌルの森”이 그것이다. 수집자는 “서늘”이 地名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외래어 표기나 지명, 인명 등을 표기할 때 쓰는 카타카나 표기로 “ソヌル”라고 옳게 번역했다. 또한 “곳”도 ‘숲’을 의미하는 제주어임을 알고 있었기에 “森”으로 옳게 번역했다.

그런데 [19]의 “곳질남도”는 사실의 오기뿐만 아니라 일본어로도 誤譯했다. ‘곳질남도’라고 표기해야 할 것을 “곳질남도”라고 오기했고, ‘숲의 나무

57) 高橋亨, 앞의 책, 157쪽.

58) 같은 책, 159쪽.

도'라는 의미로 번역해야 할 것을 '대신할 나무가'의 의미인 “代りの木が”로 오역한 게 그것이다.

[20]

A : 요목조목	B : 요목조목
A : 울산목가	B : 이어싸
A : 짓고 가자	B : 이어도사나
A : 처라쳐라	B : 이어차
.....	
A : 이어도사나 이목저목	B : 이어도사나
A : 이어도사나 이목저목	B : 이어샤나
A : 울단목이	B : 어괴야디아
A : 다드렸구나	B : 산이로구나
.....	
A : 저어라 처라 요목조목	B : 잘 넘어간다
A : 울단목이	B : 싼물고개
A : 다 들어간다	B : 짓고가자 ⁵⁹⁾

[20]은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민요조사반> 학생들이 1999년 7월 30일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 마을회관에서 채록한 자료이다. 제보자 A는 김복순 할머니이고, B는 김복녀 할머니이다. 제보자 A의 사설 중에 “울산목”은 ‘울단목’의 오기로 보인다. 왜냐하면 A는 “울산목”이하 부분에서는 두 번 “울단목”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민요조사반> 학생들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울산목”이라는 어휘의 각주를 “흠뎨 목인가”로 달았는데, 이는 어석의 오류이다. ‘울돌목’ 또는 ‘전라남도 우수영반도와 진도 사이의 해협으로

59) 『北濟州郡 舊左邑 終達里 現地學術調査報告(1999. 7. 31~8. 3)』, 『白鹿語文』 제16집(백목어문학회, 2000), 306쪽.

조류가 빠르다.’ 등으로 주석을 다는 게 옳다.

[21]

우리선황님	壽德은종와
한물지한죄긴	이만량버난
이물때이죄긴	붕기만꼽는다 ⁶⁰⁾

[21]의 “壽德”은 ‘手德’의 어석 오류이다. [21]의 사설 내용으로 볼 때 그렇다. “우리 선황님 / 수덕은 종와 // 한 물지 한죄긴 / 이만량 버난 //”을 표준어로 옮기면 ‘우리 서낭님 수덕은 좋아 한 무수기 한조금에는 이만 냥 버니까’이다. 따라서 “수덕”은 ‘힘들이지 않아도 손대는 대로 잘 맞아 나오는 개수’라는 이른바 ‘손속’의 의미인 ‘手德’으로 쓰인 것이다. 그런데 수집자는 “수덕”의 어석을 ‘手德’으로 달아야 할 것을 ‘堯舜의 壽德’의 의미인 ‘壽德’으로 잘못 달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석의 오류는 자칫 <해녀 노 짓는 소리>의 사설이 지닌 본래적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어석은 수집자의 자의가 아닌 제보자의 설명을 토대로 신중하면서도 정확하게 달아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본고는 <해녀 노 짓는 소리> 사설의 오기 및 어석의 오류 사례를 통해서, 기간 이루어진 수집된 자료의 표기와 주석에 대해 반성하는 한편, 앞으로 <해녀 노 짓는 소리>를 포함한 구비문학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함에 있어 정

60) 任東權, 『韓國民謠集』(東國文化社, 단기4294), 58쪽; 任東權, 『韓國民謠集 1』(集文堂, 1974), 58쪽.

확한 표기와 어석을 달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과 아울러 경계의 의미를 부각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논의한 <해녀 노 젓는 소리> 사설의 오기 및 어석 오류는 몇몇 어휘만을 대상으로 하여 검토한 결과이다. <해녀 노 젓는 소리> 사설의 오기 및 어석의 오류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수집자가 녹취한 자료를 제대로 청취하지 못한 점, 제주방언을 잘 모른다는 점 때문이다. 그 결과 <해녀 노 젓는 소리> 사설 중에 간혹 ‘청취불능’으로 기록된 자료집들이 더러 있다. 이는 현지조사에서 채록한 자기테이프에 의존하여 사설을 정리하다가 정확히 듣지 못할 경우 ‘청취불능’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것은 자료 수집이 일회성 현지조사로 그친 데 기인한다고 본다.

1차 현지조사에서 채록한 자료를 정리함에 있어, 청취가 제대로 안 되는 사설이나 의미가 불분명한 어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2차, 3차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사설 어휘의 어석은 채보자의 설명을 토대로 신중하면서도 정확하게 달아야지 수집자 자의로 해석하여 단다면, 어석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설 내용의 문학적 분석도 사설이 지닌 본래적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으로 제주민요의 모든 요종에 걸쳐 사설의 오기 및 어석의 오류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제주방언에 익숙하지 못한 본토 출신 학자뿐만 아니라 민요를 공부하려는 후학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제주방언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고 보니 제주민요 사설의 정확한 어석 작업이 시급히 요구된다. <해녀 노 젓는 소리>의 가창기연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채보자 또한 극소수에 불과하기에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 수집하는 <해녀 노 젓는 소리>의 사설 정리는 제주방언연구회가 1985년에 규정한 제주어표기법⁶¹⁾을 기준으로 사

61) 濟州方言研究會, 「제주어표기법」, 『濟州語辭典』(濟州道, 1993), 605~616쪽.

설을 기록하되, 표준어로도 번역하여 부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난해한 어휘의 경우는 상세한 주석 작업도 해야 할 것이다. 이래야 제주어에 능하지 못한 이들도 사실 접근이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제주도뿐만 아니라 본토에서 전승되는 <해녀 노 젓는 소리>를 수 집합에 있어서, 제주방언과 제주관습을 익히 알고 있으며, 특히 해녀관련 어휘 및 입어 관행과 해녀집단의 풍속 등에 해박한 지식을 소유한 전문가나 학자를 조사자 범위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해녀 노 젓는 소리> 사실의 오기 및 어석의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해녀 노 젓는 소리, 민요, 사실의 오기 및 어석의 오류, 현지조사, 제주방언.

<참고문헌>

1. 자료

- 강원도 동해출장소 『강원 어촌지역 전설 민속지』, 강원도, 1995.
- 高橋亨, 『濟州島の民謠』, 天理大學 東洋學研究所, 1968.
- 金料白, 「女人國巡禮 濟州島海女」, 『三千里』創刊號 三千里社, 1929.
- 金思燁·崔常壽·方鐘鉉, 『朝鮮民謠集成』, 正音社, 1948.
-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1965.
- _____, 『濟州의 民謠』, 新亞文化社(民俗苑), 1993.
- 金永三, 『濟州民謠集』, 中央文化社, 1958.
- 미 상, 「海女の 노래—濟州島民謠」, 『別乾坤』第7卷第7號(제42호), 開闢社, 1931.
- 『白鹿語文』 제16집, 백록어문학회, 2000.
-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울산울주지방 민요자료집』, 울산대학교출판부, 1990.
- 李東喆, 『江原 民謠의 世界』, 국학자료원, 2001.
- 이성훈, 「경남 통영시 해녀 <노 짓는 노래> 조사」, 『한국민요학』 제11집, 한국민요학회, 2002.
- _____, 「강원도 속초시 해녀 <노 짓는 노래>와 생애력 조사」, 『승실어문』 제19집, 승실어문학회, 2003.
- 李元鎮, 『耽羅志』.
- 任東權, 『韓國民謠集』, 東國文化社, 1961.
- _____, 『韓國民謠集 I』, 集文堂, 1974.
- _____, 『韓國民謠集 II』, 集文堂, 1974.
- _____, 『韓國民謠集 IV』, 集文堂, 1979.
- _____, 『韓國民謠集 V』, 集文堂, 1980.
- 林 和, 『朝鮮民謠選』, 學藝社, 1939.
- 濟州方言研究會, 『濟州語辭典』, 濟州道, 1995.

- 秦聖麒, 『濟州島民謠』 제1집, 희망프린트사, 1958.
_____, 『濟州島民謠』 제2집, 중앙미술사프린트부, 1958.
_____, 『濟州島民謠』 제3집, 성문프린트사, 1958.
_____, 『오돌또기』, 友生出版社, 단기4293(1960).
_____, 『南國의 民謠』, 正音社, 1977.

2. 논저

- 강한호, 「해녀 민속 문화의 이동에 관한 연구-경남 사랑도의 구비문화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女性勞動謠를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1983.
- _____, 「민요 요사 속에 담긴 유별난 제주 방언」, 『東岳語文論集』 제29집, 동악어문학회, 1994.
- _____,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 문순덕, 「제주방언의 보존과 활용 방안」, 『영주어문』 제6집, 영주어문학회, 2003.
- 石宙明, 『濟州島方言集』, 서울신문社出版部, 1947.
- 申斗憲, 「濟州島民謠의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61.
- 愼勝行, 「濟州方言에서의 日本語系女 外來語 研究」, 『국어교육』 48,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1984.
- 梁弘植·吳太用, 『濟州鄕土記』, 프린트관, 단기4291(1958).
- 이기문, 「濟州方言과 國語史 研究」, 『耽羅文化』 第13號,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3.
- 濟州方言研究會, 「제주어표기법」, 『濟州語辭典』, 濟州道, 1995.

<Women Divers' Rowing Song>, Mistranslation and Errors in Its Description

Lee, Seong-hun*

A great deal of data on the folk song of Cheju island including <Women Divers' Rowing Song> has been collected and interpreted. Yet, much has been mistranslated or miswritten by collectors and commentators, among which rarely has been corrected. This paper is to take examples of mistranslation and errors in description of <Women Divers' Rowing Song> recorded in the existing folk song data book, and correct them. Then, this can be served as an opportunity to think over interpretation on the data previously collected, and learn a precious lesson that accurate translation is essential when collecting and studying literature including this song of women divers, handed down by word of mouth.

The fundamental reasons for mistranslation and errors in description of the song are that collectors failed to listen to the recorded data correctly; was not familiar with the Cheju dialect; conducted an on-the-spot survey just for one time. In case there are unintelligible description or ambiguous words recorded in the first field work, the second and the third surveys should be followed to raise their value as data. In addition, words of description should be translated in accurate and cautious manner, based on the explanations of those who provide informat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a collector's arbitrary interpretation can fall into the error of mistranslation and explanation of description totally different from its original meaning when it is

* Instruct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analyzed in literal terms.

Therefore, the data of <Women Divers' Rowing Song> will have to be recorded based on the Notation of Cheju Language prescribed by the Cheju Dialect Society in 1985, and added after being translated as standard Korean. Besides, detailed explanation will have to be added to the abstruse words. For all of these efforts make it easier for those who are not familiar with the Cheju dialect to understand description of folk songs.

Moreover, experts who know the Cheju dialect and customs well and particularly have a profound knowledge about words related to the sea and women drivers are needed to collect <Women Divers' Rowing Song> handed down in Cheju island and the mainland.

Key-words : *Women Divers' Rowing Song*, folk song, mistranslation and errors in description of the song, field work, Cheju dialect.